

# 나도향 소설에 나타난 혐오의 감정 구조\*

-『환희』를 중심으로

김 미 현 (이화여대)

## < 목 차 >

- |                          |                              |
|--------------------------|------------------------------|
| 1. 서론 : 나도향 소설과 혐오로서의 연애 | 4. 도덕적 혐오와 성찰적 근대성           |
| 2. 동물성 혐오와 순수 근대의 경계 짓기  | 5. 결론 : 1920년대 초기소설과 혐오의 근대성 |
| 3. 여성 혐오와 근대의 오염에 대한 공포  |                              |

## 국문초록

1920년대 초기 한국소설은 주로 동인지 문학이나 문예사조 중심의 접근을 통해 낭만성과 감상성, 퇴폐성 등에 주목하면서 1910년대 말 이광수 문학의 계몽성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평가받았다. 특히 『백조』동인으로도 활동했던 나도향 소설은 산만한 문체나 우발적 플롯, 감정의 과잉 등의 한계점을 보인다고 지적받았지만, 첫 장편연애소설인 『환희』에서 드러나고 있는 혐오의 감정 구조를 통해 보다 복합적인 근대의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새로운 평가가 가능하다. 보통 혐오는 ‘오염에 대한 두려움’이나 ‘원치 않는 가까움에 대한 거절’ 등을 통해 타자를 예측화하거나 배제시키는 비인간적 감정을 의

\* 본 논문은 교육부 대학 인문 역량 강화사업(CORE)의 게재료 지원을 받았음

미한다. 그러나 『환희』에서 근대적 알레고리로 등장하는 자유연애와 그 실패로 인해 유발되는 혐오의 감정은 근대의 비극과 그 극복 양상을 동시에 보여준다. 성(性)과 돈(金)에 좌우되는 ‘더러운 연애’와의 경계 짓기를 통해 순수함에 대한 인간적인 추구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2장), 처녀성에 대한 집착을 통해 여성의 몸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남성들의 나약함이나 두려움을 완벽하게 숨기지도 못한다.(3장) 무엇보다도 죄책감이나 분노와 연결되는 부정적 혐오를 극복하기 위한 도덕적 의지가 과잉 눈물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생산적이다.(4장) 이처럼 나도향의 『환희』와 같은 1920년대 초기 연애소설 속의 혐오는 ‘혐오에 대한 혐오’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적 혐오의 긍정적인 부메랑 효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연애, 감정 구조, 혐오, 순수, 오염, 처녀성, 여성 혐오,  
멜로드라마

## 1. 서론 : 나도향 소설과 혐오로서의 연애

나도향(1902-1926)은 25세에 요절한 작가로서, 불과 5년 여 동안 작품 활동을 하면서 22편의 단편소설, 2편의 중편소설, 2편의 장편소설을 창작한 대표적인 1920년대 작가이다. 「뽕」(1925), 「병어리 삼룡이」(1925), 「물레방아」(1925), 「지형근」(1926) 등의 후반부 작품이 대표작으로 거론되지만 초기부터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이어나갔다. 무엇보다도 1922년 홍사용, 현진건, 이상화, 박영희 등과 함께 동인지 『백조』를 창간하여 1920년대 초기 한국 근대 문학의 감상적 낭만주의를 이끌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사회적 관심사에 바

탕을 둔 리얼리즘적 경향을 점점 강화했다고 평가받는다.<sup>1)</sup> 짧은 창작 시기에 전·후반부의 차이가 논의될 정도로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는 데에는 나도향의 작품 자체가 감정과 이성, 낭만과 현실, 개인과 사회, 미학과 윤리 등의 양 극단을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도향의 첫 장편소설이자 동아일보에서 시도한 첫 연재소설인 『환희』(1922.11.21.-1923.3.21)는 당시에 대중들의 엄청난 호응을 얻으면서 나도향의 평판작이자 논쟁작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실제 처녀작인 「출학(黜學)」(『배재학보』, 1921.4)보다 이 작품을 작가 스스로도 처녀작이라고 규정할 만큼<sup>2)</sup> 애착이 강했지만, 산만한 문체와 개연성 없는 플롯, 지나친 작가의 개입 등을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sup>3)</sup>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나도향 소설을 대표하는 장편연애소설로서 “불행과 불운에서 헤매는 청춘 남녀의 애끓는 사랑의 역사”(268면)<sup>4)</sup>를 다루는 만큼 나도향이 지닌 연애의 문제와 그 연애를 둘러싼 감정 구조를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감정 구조란 “한 시대나 특정 세대의 경험과 행위에 깊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배적 감정”<sup>5)</sup>을 의미한다. 때문에 집단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파악해야 할 감정의 심층적 문제를 다룰 수 있다.

특히 이 소설은 영철과 혜숙이라는 이복 남매가 각각 보여주는 삼각의 연애 관계(영철-설화-우영, 혜숙-선용-우영)를 통해 연애, 성, 돈, 유학, 기생,

1) 나도향의 문학이 초기의 낭만주의에서 후기의 사실주의로 변모하면서 낭만성과 현실성의 조화를 추구한 것으로 본 연구는 백철의 『신문학사조사』(백양당, 1949, 신구문화사, 1980, 212-244면)가 대표적이다.

3) 나도향, 「환희-처녀작 발표 당시의 감상」, 주종연·김상태·유남옥 편, 『나도향 전집』 상, 집문당, 1988, 435-436면 참조.

3) 나도향의 초기 소설에 주로 우울, 비애, 고통, 원망 등의 감정이 등장하면서 로맨틱하면서도 센터멘털한 측면이 등장하기에 ‘값싼 방랑’이나 ‘애상적 감상문’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주로 받았다.

임정연, 「근대소설의 낭만적 감수성」, 『현대소설연구』, 48권, 326면 참조.

4) 앞으로 『환희』의 본문 인용은 『나도향전집』하(집문당, 1988)에 의거해 면수만 밝히도록 한다.

5) 손유경, 『고통과 동정』, 역사비평사, 2008, 29면.

신식 결혼 등과 관련된 근대 초기의 담론들을 고찰해볼 수 있기에 의미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sup>6)</sup> 1920년대를 대표하는 청춘 남녀의 연애를 통해 흔히 나도향 소설의 특징으로 논의되는 낭만성과 감상성, 퇴폐성 등의 문제를 재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연애를 통해 ‘참자기’ ‘참사랑’ ‘참인생’을 추구했던 인물들이 비극적 결말을 맺는 원인이나 그 과정을 규명해 봄으로써 기존의 나도향 문학과 근대초기 연애담론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출발점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환희』에서 인물들이 보여주는 ‘혐오’의 감정에 주목한다. 혐오는 불안이나 수치심, 죄책감 등과 연관되는 복합적인 감정으로서, 연애의 실패에서 오는 자기혐오나 상대방에 대한 죄책감, 시대에 대한 분노 등을 유발한다. 모든 감정은 상대 혹은 대상에 대한 경험과 평가를 전제하며, 특히 혐오라는 부정적 감정조차도 반대편을 이전과는 다른 시각에서 인식해야 함과 동시에 무시하지 못할 중요한 존재로 간주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sup>7)</sup> 혐오의 감정 구조는 당대 인간들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혐오의 감정은 “오염에 대한 두려움”<sup>8)</sup>과 연관되는데, 이는 순수함에 대한 고수를 그 전제로 한다. 순수함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 혐오의 출발인 것이다. 생물학적으로는 배설물이나 쓰레기 등 역겨운 대상과의 접촉으로 인해 오염물이 체내화할 것에 대한 불쾌감에서, 사회학적으로는 유대인이나 동성애자처럼 동화되고 싶지 않은 소수자나 약자들에 대한 거부에서 혐오가 시작된다.<sup>9)</sup> 즉 혐오는 “원치 않는 가까움에 대한 거절”<sup>10)</sup>이기에 우리가 무엇을 더럽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며 공격성을 보이는지 알려준다. 이러한 더러움에 대한 공포와 공격을 통해 자아와 타자, 주체와 객체 사이의 권력과 위계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고, 미와 추, 선과 악의 시대적 기준 또한

6) 진정석, 「나도향의 『환희』연구」, 『한국학보』, 76집, 130면 참조.

7) 마사 너스바움,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62-63면 참조.

8) 앞의 책, 144면.

9) 앞의 책, 166면 참조.

10) 앞의 책, 166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나도향의 『환희』속 연애 감정에 동반되고 있는 혐오의 감정을 통해 그의 문학이 보여주는 낭만성과 감상성과의 연관성, 개인과 사회의 불화, 감정과 자본의 충돌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도향은 연애를 연애 자체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연애를 오염시키는 것에 대한 혐오감을 통해 연애를 환기시킨다. 때문에 소설 속 연애의 전개 양상에 따라 혐오의 감정도 그 대상과 종류가 바뀐다. 연애의 시작을 통해 혐오감이 발동되고(2장), 연애의 진전을 통해 혐오감도 증폭되며(3장), 연애의 파국을 통해 혐오의 극복이 이루어진다.(4장) 『환희』속 인물들은 지나치게 많이 사랑하고, 자주 울며, 거의 실패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런 연애 과정에서 극대화되는 감상성이나 낭만성의 병리적 측면에만 주목했다.<sup>11)</sup> 하지만 이런 부정적 감정에 내재되어 있는 정 반대의 욕망에도 주목한다면 등장인물들이 느끼는 혐오의 감정 구조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1920년대 초기 연애소설을 일시적·개인적·주관적인 감정 자체가 아닌 지속적·사회적·객관적인 감정 구조의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나도향의 소설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혐오에 대해 1920년대 초기 근대 체험의 특수성과 연결시켜 분석함과 동시에, 이런 근대 초기 체험과 연관된 혐오의 감정에 대한 손쉬운 감정적 비판이나 단순한 도덕적 단죄에서 벗어나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2. 동물성 혐오와 순수 근대의 경계 짓기

소설의 제목 『환희』는 ‘즐거움(歡喜)’이 아니라 ‘환상적 유희(幻戲)’라는 뜻이다. ‘꿈같은 장난’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제목은 소설의 맨 끝

---

11) 이해령, 「성적 욕망의 서사와 그 명암-나도향 『환희』론」, 『한국소설과 글상학적 타자들』, 소명출판, 2007, 114면 참조.

에 “이 모두 우리 인생이 한낱 환희(幻戲)인 까닭이로다.”(379면)에 유일하게 등장한다. 여기서 암시되고 있듯이 소설 속 인물들의 삶이나 연애가 ‘한바탕의 헛된 꿈’ 즉 일장춘몽(一場春夢) 같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소설 자체가 ‘실연(失戀)’과 ‘자살’이라는 부정적 결말로 끝나고 있기 때문이다. 17살의 아름답고 순수했던 여학생 혜숙은 이복 오빠인 영철의 소개로 만난 선용에게 호의를 느끼고 장래를 약속하지만, 또 다른 오빠 친구인 호색한 우영에게 순결을 빼앗겨 반강제적으로 그와 결혼한다. 그 후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3년 만에 선용과 재회하지만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또 다른 여주인공인 18살의 기생 설화는 영철에게 사랑을 느끼지만, 기생으로서의 신분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렇듯 다소 선정적이면서 신파적인 ‘혜숙-선용-우영’과 ‘설화-영철-우영’의 삼각관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지만, 직접적인 감정의 토로와 사변적 언술을 통해 인물들의 연애관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도 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동안의 논의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들의 연애에서 중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우영의 역할이다. 두 개의 연애 사건에서 모두 연애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좌우하는 매개자이자 장애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영은 선용과 영철에게 모두 경쟁 상대이다. 중앙은행 사장의 아들이라서 “인물 잘나고 돈 많고 학교도 상당히 다닌 또한 풍류남아로 어디를 내세우든지 빠질 것이 없”(143면)는 남성이다. 이에 걸맞게 혜숙의 미모에 반해 그녀를 차지할 욕심으로 가난한 고학생인 선용의 빈틈을 노려 혜숙과 결혼까지 하게 된다. 설화와는 관계 또한 돈을 주면 쉽게 살 수 있는 존재가 기생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녀와 영철과의 사랑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런 우영에 대한 여성인물들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 소설 속 연애의 지형도가 변하기에 우영의 역할은 의외로 중요하다. 그리고 혐오의 감정과 연관될 때도 우영을 제외한 4명의 인물들이 모두 그에 대해 혐오를 느끼고 있기에 그의 실체는 중요하다. 특히 여성들이 우영의 외모나 재력으로부터 나오

는 유혹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혐오의 양상이 좌우된다. 우영이라는 존재 자체가 혐오의 출발점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혜숙은 백우영을 오늘 만나기 전까지는 김선용에게 모든 촉망을 두었으며 모든 공상에 현실을 기대하였으나 백우영을 만나 보고 나니까 거미줄 엮듯 공중에 엮어 놓은 공상이 한낱 꿈같이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백우영에게 모든 환희(歡喜)와 열락(悅樂)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을지라도 김선용의 보지 않는 장래에서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백우영은 모든 미(美)의 소유자라 할 수 있을 지라도 김선용은 그렇지 못하였다.

(중략)

그의 마음은 자기가 하고 싶고, 옳다고 인정하는 것과 고집(固執)할 수 없을 만큼 경험이 없는 어린애다.

자기의 마음이 비록 백우영의 그의 묘한 힘에 끌려 갈지라도 자기의 오라버니를 절대로 신임하는 혜숙은 영철의 말을 일종의 경전(經典)같이 믿을 뿐이다.

그래서 지금 자기의 마음 한 모퉁이에는 웬일인지 김선용에게 대한 불만이 있을지라도 그 불만이 있는 김선용을 당장에 배척할 만큼 용기는 없었다. (206-207면)

매력이 없다면 위험하지 않다. 문제는 우영 자체가 우월한 외모와 세련된 매너, 풍족한 경제력까지 갖추었기에 치명적으로 끌리는 남성이라는 사실이다. 혜숙은 우영과 만나기 전 못생긴 외모에 경제력도 없는 선용을 먼저 보고는 실망한다. 반대로 인용문에서처럼 우영을 처음 보고는 “모든 환희(歡喜)와 열락(悅樂)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묘한 힘”을 느낀다. 이런 거부할 수 없는 유혹에 넘어간다면 혜숙과 선용의 사랑은 불가능하게 된다. 선용에 대한 혜숙의 감정이 “자기 애인이 될 만한 자격이 있게 억지로 만들어 생각을 해보았다.”(136면)에서 드러나듯이 “경험이 없는 어린애” 수준에 머물러 있기에 더욱 위험한 것이다.

『고만두세요. 저는 말하지 않을 테야요 설화라는 계집년의 사랑은 언제든지 하나밖에 없지요. 그러나 백우영 씨는 설화 이상 가는 여자를 얼마든지 사랑할

수가 있으니까요.』

『설화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나를 알아 주지 못하는 말이지.』

『모르기는 무엇을 몰라요? 제가 만일 백우영 씨 한 분만 믿었다가 우영 씨가 당신의 마음이 한 번만 돌아서시는 때에는 저는 속절없이 불행한 사람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다 고만두세요. 저 같은 년이 참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덤벙덤벙 지내지요. 그러다가 죽지요.』

그러다가는,

『돈만 있으면 저 같은 년의 사랑은 얼마든지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지금이라도…….』(196면)

설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노류장화(路柳牆花)의 처지라지만 의외로 설화는 영철에게 일편단심(一片丹心)을 보이며 정신적 정조를 지키려 한다. 기생의 신분이기애 손님으로 자신을 찾아오는 우영의 공세를 기분 나쁘지 않게 막아야만 하는 것이 인용문의 상황이다. 이때 설화의 속마음은 흔들리고 있는 혜숙과는 달리 호오(好惡)가 분명하다.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한 번만 돌아서는 때에는 저는 속절없이 불행한 사람이 되겠지요.”라는 말과 “돈만 있으면 저 같은 년의 사랑은 얼마든지 살 수가 있으니까요.”라는 말 속에 기생으로서의 수치심과 기생 아닌 여성으로서의 의지가 모두 담겨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거절의 변(辯)이 우영에게만이 아니라 영철에게도 해당된다는 데에 설화의 딜레마가 있다는 것이다.

영철은 맨 처음에 우영이 누이인 혜숙을 소개시켜달라고 했을 때 주저한다. 우영에 대한 나쁜 평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혜숙은 혼자 우영의 집을 찾아 갔다가 봉변을 당한다. 혜숙은 우영이 “아무 말도 없이 이상한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며 거북한 침을 삼킬 때”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며 그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선용 또한 우영이 돈 많은 은행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불안과 질투를 느끼다가 일본으로 도피해 버린다. 혜숙이 먼저 편지를 통해 적극적인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사랑은 아예 시작조차 되지 못했을 것이다. 설화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영은 적극적인 공세를 퍼붓는다. 하지만 설화는 “냉정한 얼굴에 억지로 반웃음”(169면)만을 지을 뿐이다.

이처럼 남녀를 막론하고 인물들이 우영에게 느끼는 혐오감은 ‘성(性)’과 ‘돈(金)’이라는 근대적 가치에 대한 양가적 감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성적 매력과 탄탄한 경제력은 우영이 지닌 장점이자 단점이다. 우영을 제외한 다른 인물들의 진정성을 훼손시키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영철은 유명한 재산가 이상국의 외아들이면서도 우영과는 다르게 자립적인 행보를 보인다. 선용 또한 가난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려고 노력한다.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 우영의 존재는 자신들이 지켜야 할 인간적인 가치를 위협하는 비인간적인 동물성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이 우영이기 때문이다. 영철이 선용을 “사랑의 실패자인 동시에 돈에 주린 자”(236면)라고 생각해서 학자금으로 돈 천원을 지원해주는 것도 역설적으로 돈이 사랑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기 때문이다. 영철 또한 설화와 우영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돈으로 인하여 자기는 실연자가 되어 버렸다.”(327면)라고 한탄한다. 돈에 대한 혐오가 사랑에 대한 혐오로 이어진 것이다.

무엇보다도 “돈은 뚜쟁이이고 신의 세속적 경쟁자이기 때문에 순결의 강박에 싸인 주체들에게는 일차적으로 혐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sup>12)</sup> 때문에 우영이라는 인물로 대변되는 동물성은 그 자체로 “환경(環境)의, 모순의, 성격의 당착(撞着)”(222면)을 불러온다. 이런 우영의 도전과 그에 대한 다른 인물들의 응전은 곧 성과 돈이라는 육체적이고도 사회적인 동물성과의 싸움이다. 비자발적인 성과 비생산적인 돈으로부터 자존심과 순수함을 지켜내는 것이 인간의 인간다움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혐오라는 감정의 발생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 혐오는 그 기원상 동물적인 것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욕망과 관련이 있다. 동물과 그것의 부산물과 배설물에서 유래하는 구토나 냄새, 메스꺼움을 막으려는 강박과 긴밀하게 연결되기에 혐오는 이런 오염 물질로부터의 격리 혹은 분리를 요구하게 된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 사회적 측면에서는 역겨움을 느끼게 만드는 집단을 배제하거나 주변화하려는 데서 혐오는 출발한다.<sup>13)</sup>

12) 이수영, 『섹슈얼리티와 광기』, 그린비, 2008, 156면.

『환희』에서도 우영처럼 원치 않는 대상, 특히 동물성을 대변하는 존재와의 접촉을 기피하거나 거절하는 것을 통해 혐오의 감정이 시작되고 있다. 오염 물질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자신이 저열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그런 존재와의 경계를 만들고 그 경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sup>14)</sup> “동물과 우리 자신과의 경계를 정돈하려는 관심”<sup>15)</sup>으로 혐오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즉 혐오는 동물적인 것과의 경계 짓기를 통해 인간다움을 유지하려는 인간의 취약성과 나약함, 두려움을 반영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비정상적인 위반으로 생각하면서 혐오를 스스로 정당화한다.<sup>16)</sup>

하지만 우영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확인되듯이 현실에서 동물성의 침범을 피할 수는 없다. 우영에 대한 다른 인물들의 혐오가 이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처럼 혐오는 완벽한 순수함이라는 불가능한 경계를 유지하려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동물을 피함으로써 동물이 되고 싶지 않다는 분리 욕망과, 자신은 동물이 아니라는 나르시시즘으로부터 혐오는 시작된다. 무엇보다도 우영이라는 인물 자체가 1920년대 초기 근대소설의 중심 화두이자 낭만성의 상징이었던 자유연애의 부정적 측면을 성(性)과 돈이라는 근대적 욕망을 대변한다. 때문에 우영이 보여주는 ‘근대답지 않은 근대’로서의 동물성과, 그런 비근대적 동물성과 경계를 지음으로써 ‘순수한 근대’를 구현하고자 한 주인공들의 꿈이 오히려 혐오를 촉발시키고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근대의 아이러니를 확인할 수 있다.

13) 마사 너스마움(2015), 앞의 책, 36-37면 참조.

14) 앞의 책, 168면 참조.

15) 앞의 책, 169면.

16) 앞의 책, 173면 참조.

### 3. 여성 혐오와 근대의 오염에 대한 공포

혐오의 감정을 유발하는 대표적 대상이 바로 ‘여성의 몸’이다. 불가촉천민의 몸처럼 여성의 몸은 성교나 출산, 생리와 연관되기에 혐오의 대상이 된다. 유약하고, 끈적거리며, 유동적이고, 냄새나기에 동물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특히 남성들은 자신의 정액을 받아들이는 여성의 몸을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순결한 존재를 타락시켰다는 죄책감으로부터 남성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미 더럽혀져 있는 여성의 몸이라는 이미지가 필요하게 된다.<sup>17)</sup> 혐오의 기저에 “나는 이 추악한 세상을 나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길 거부한다.”<sup>18)</sup>는 순수함에의 욕망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고, 이러한 욕망이 남성들에게 작용할 때는 여성이라는 “특정 집단을 배척하기 위한 사회적 무기”<sup>19)</sup>로 작용하게 되기에 더욱 위험해진다.

『환희』에서 동물적 존재를 대표하는 우영과의 경계 짓기에 실패하게 되는 이유도 이런 여성의 몸에 대한 남성들의 혐오 때문이다. 혜숙은 우영에 의해 처녀성을 상실하고, 기생인 설화는 이미 처녀성을 상실한 상태이다. 이런 ‘비-처녀’로서의 여성의 몸에 대한 남성인물들의 혐오감이 이들의 사랑에도 영향을 미친다. 혜숙은 우영과의 성 관계 전에는 “갓 피려는 백합꽃 같은 처녀”(156면)로서 순수함 그 자체를 대변한다. 그러나 우영과의 성 관계 후 스스로를 “자기 몸에 는질는질한 오점(汚點)이 박힌 듯”(218면)하다고 묘사하면서 “더럽고 진저리쳐지는 죄의 기록”(218면)으로 폄훼한다. 설화 또한 “나는 기생이다. 더러운 계집이다. 저주 받은 여자이다.”(228면)라는 자기혐오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 두 여성 모두 처녀성 상실과 연관되어서 가장 많이 내뱉는 말이 ‘더러운 계집’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여성의 몸과 연관된 처녀성 신화가 혐오를 증폭시키는 것은 순수함의 개념이 오염과 맺는 양가적 관계 때문이다. 종교적 제의(祭儀)

17) 앞의 책, 208면 참조.

18) 앞의 책, 196면.

19) 앞의 책, 200면.

에서 확인되듯이 인간의 신성함에 대한 체험은 신성한 것과의 접촉 금지 자체와만 연결되지만, 신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체험은 신성한 것과의 접촉도 가능해야 한다는 양면적 위험에 노출된다. 금지되어야 접촉이 욕망되듯이, 깨끗하기에 오염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sup>20)</sup> 성스러운 것과 성스럽지 않은 것이 절대적인 반대 개념이 아니듯이 순수함과 부정(不淨)의 관계 또한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처녀성은 그것이 상실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순수함을 환기시킨다면, 순수함 또한 오염된 이후에야 사후적(事後的) 가치로서 인정받게 된다. 때문에 처녀성 상실에 대한 혐오는 처녀성이 지닌 오염의 위험성을 두려워하는 데서 오는 나약한 남성들의 방어 기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여성의 순결은 단지 위생학적 차원이 아닌 권력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젠더 개념이 된다.

우영은 어제 저녁에 혜숙을 보낸 뒤에 여태까지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그윽하던 기꺼움이 눈 녹듯이 다 풀리어 버리고 부끄러움과 더러움이 그의 가슴 속을 용트림하여 지나가는 듯하고 또는 공연한 짓이로다 하는 후회가 그를 밤새도록 귀찮게 하더니 그대로 잠이 들었었다.

지금도 일어나 앉아 어제 저녁의 혜숙을 더럽힌 것이 참말일까 하다가 참말이 아니고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하였다. 그러다가는 그렇지만 참말이지 할 때 그러면 혜숙을 일평생 데리고 살까? 하였다. 그렇지, 함께 살면 혜숙도 부정한 여자가 아니요, 나도 잘못된 것은 없을 터이지. 그렇다, 같이 데리고 살겠다! 하였으나 어쩐지 그의 마음에 꽃다옴게 빛나고 미치게 춤추는 많은 환영들이 돌돌 뭉치어져서 그의 가슴 한 복판에 착 달라붙는 듯이 거북하고 귀찮은 듯하였다. (224-225면)

『저는 그것을 압니다. 정조를 압니다. 그러나 저는 정조 없는 더러운 계집입니다. 제가 영철 씨를 사랑하기 전에는 그것이 그렇게 마음 쓰린 줄 몰랐더니 영철 씨의 사랑을 받은 후 오늘에는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참으로 쓰리고 아파요.』

하다가,

『영철 씨는 어떻게 더러운 여자라도 참으로 사랑하십니까? 저 같은 사람이

20) 메리 더글라스, 유제분·이훈상 역, 『순수와 위험』, 현대미술사, 1997, 30-31면 참조.

영철 씨의 사랑을 바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영철 씨! 다만 한 가지 원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언제든지 영철 씨가 저를 잊어주지 않으신다면 그 외에 더 행  
복이 없어요.」

영철의 전신의 맥이 풀리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설화! 설화는 다시 살았다. 설화는 다시 처녀가 되었다! 아아, 나는 영원히  
잊지 않을 터이야.』(232면)

첫 번째 인용문은 혜숙의 처녀성을 빼앗은 후 우영이 느끼는 감정이고,  
두 번째 인용문은 설화의 자신에 대한 사랑을 의심한 후 영철이 느끼는 감  
정이다. 먼저 우영은 혜숙과의 성 관계 후 ‘기꺼움→부끄러움→더러움→후회→귀  
찮음’의 순서로 감정이 급변한다. 혜숙을 “부정한 여자”로 만들지 않으면서  
스스로도 당당해지기 위해서는 그녀와의 결혼밖에 해결책이 없지만 그의 주  
된 감정은 “거북하고 귀찮은 마음”뿐이다. 영철 또한 우영과의 일을 고백하  
는 혜숙에 대해서 겉으로는 동정의 눈길을 보내지만, 은연중에 그녀에게서  
“추악한 냄새”(220면)를 맡으면서 그녀의 몸을 떠 밀치려고까지 한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긍정적 인물인 영철조차도 기생인 설화의 몸과 마음을 “다시  
살았다.”거나 “다시 처녀가 되었다.”라며 재생(再生) 혹은 정화(淨化)의 과  
정을 통과해야만 원상 복구되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영  
철의 성 의식 자체가 1920년대를 전후해서 강력하게 부상했던 처녀성에 대  
한 숭배를 적나라하게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sup>21)</sup>

남성들이 보여주는 처녀성 상실에 대한 반응을 통해 이 소설 속 연애의  
실패가 육체 혹은 성욕의 발견으로 인한 영혼의 왜곡이나 굴절에 연유한다  
고 지적되기도 한다.<sup>22)</sup> 하지만 이들의 사랑의 불가능성은 단순히 성욕의 문  
제가 아니라 성욕을 대하는 인물들의 정신 자체의 문제이다. 이들은 실제 연

21) 정혜영, 「근대의 성립과 ‘처녀’의 발견」, 『식민지기 문학과 근대성』, 소명출판,  
2008, 121면 참조.

22) 유문선, 「테몬과 맞선 영혼의 굴절과 좌절-나도향의 『환희』론」, 정호웅 외, 『장편  
소설로 보는 새로운 민족문학사』, 열음사, 1993, 28면 참조.

박현호, 「나도향과 욕망의 문제」, 『식민지 근대성과 소설의 양식』, 소명출판,  
2004, 157면 참조.

애를 한 것이 아니라 연애와 연애를 한 것이다. 때문에 한 점의 오점(汚點)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결벽증의 단계를 지향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된 것처럼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환희』에 등장하는 성은 1910년대 말부터 이광수의 계몽적 주체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정신과 이분법적으로 대립되거나 좌악시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일탈성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병리적 증후를 보인다. 문제는 이런 특성을 담보한 주체로서 여성만을 한정한다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해 유발되는 여성 혐오는 “나쁜 여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여성을 참조해 사회적 필요에 따라 재구성되는 것”<sup>23)</sup>이다. 순수함에 대한 집착과 비순수한 여성에 대한 공포로 인해 남성들은 여성을 혐오한다. 그럼으로써 여성이 아닌 남성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인식으로까지 발전시킨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을 여성 자체가 아닌 불순한 이미지의 여성으로 규정하면서 여성을 지배하거나 억압한다는 측면에서 여성 혐오자인 남성은 강자이다. 그러나 그런 남성들은 『환희』의 우영이나 영철에게서 확인되듯이 여성들의 순결과 순수함에 끊임없이 경도되면서 자신들의 남성다움을 증명하기 위해 여성의 처녀성에 집착한다는 점에서는 약자이다. 이럴 때 증폭되는 여성 혐오는 “여자라는 시시하고 불결하며 이해 불가능한 생물에 게 욕망의 충족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한 남자들의 분노와 원한”<sup>24)</sup>의 감정에 다름 아니게 된다. 처녀성에 대한 남성들의 이런 맹목적 집착은 여성을 성녀 아니면 창녀로 이분화 시킨다는 점, 그로 인한 희생양 자체가 다름 아닌 남성들이라는 점에서 혐오의 이중성 혹은 양가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여성의 처녀성으로부터 도주하면서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모순된 존재가 바로 우영과 영철과 같은 남성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여성의 여성

23) 윤보라 외, 『여성 혐오가 어쨌다구?』, 현실문화, 2015, 16면.

24) 우에노 치즈코, 나일등 역,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2012, 16면.

에 대한 혐오이다. 혜숙은 우영과 결혼했지만, 자신의 ‘더러운’ 과거를 부정하기 위해 ‘정월’로 개명까지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한다. 하지만 부정(不貞)한 여자라는 굴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자기혐오가 동성(同性)인 기생 설화에게 투영됨으로써 설화를 자살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본인까지도 자살하도록 만든다. 오빠인 영철이 기생인 설화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안 혜숙(정월)은 자신이 오빠의 여학생 애인인 척하며 설화를 찾아가 영철을 포기해 줄 것을 요구한다. 기생에 대해 “정조 깊다는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동물”(307면)이기에 “때 묻은 여자의 속옷을 보는 것같이 더럽고 음란한 감정”(307면)을 느끼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로 설화를 직접 만나본 후에는 그녀의 양전함과 정갈함에 놀라지만, 그럼에도 오빠와의 사랑을 인정하지는 못한다.

남성의 여성에 대한 혐오는 모멸감을 동반하지만, 여성의 여성에 대한 혐오는 죄책감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단순히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자기차별적인 분노를 통해 공격성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환희』에서도 두 여성은 서로에게 느끼는 혐오감을 통해 서로의 자살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 혐오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어서 더욱 위험하기도 하다. 그 자체로 남성적 폭력을 비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처녀성의 신화가 여성들에게조차 얼마나 뿌리 깊게 내재화되어 있는 혐오의 기체인지 반증하고 있다. 동물성과 반대되는 처녀성의 상실에 대한 공포가 그에 대한 집착과 혐오로 동시에 연결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처녀성의 상실은 자유연애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그로 인한 탈낭만화에 대한 공포 또한 동시에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근대 초기 연애 체험의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4. 도덕적 혐오와 성찰적 근대성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혐오의 혐오스러움은 더러움에 대한 강박과 거부로 인해 불안감과 수치심까지도 유발한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혐오일 때는 죄책감 또는 죄의식과 연결되면서 자기치별적인 공격성을 보여준다는 데에 있다. 이런 부정적인 혐오를 최종 단계에서 극복 혹은 승화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눈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분비물 중에서 침이나 정액, 배설물과 달리 유일하게 눈물만이 혐오감을 유발하지 않는다. 눈물을 통해서만 동물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sup>25)</sup> 이런 맥락에서 눈물은 다른 분비물에서 보이는 동물성을 제거한, 가장 순수하고 숭고한 인간의 상징물이 된다.

눈물의 이런 인간적 숭고함은 멜로드라마적 감수성을 병적이고 퇴폐적인 것으로 평가했던 기존의 논의를 재고하게 한다. 인간은 왜, 그리고 언제 눈물을 흘리는가?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대답이 가능하다. 첫째는 자신을 나약한 존재로 파악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흘리게 되는 감상적 눈물이 있다. 여기에만 주목한다면 눈물은 패배자나 낙오자의 한탄일 뿐이다. 기존 논의에서 행해진 나도향의 소설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이런 눈물에만 주목한 경우이다. 둘째는 어쩔 수 없는 인간적 한계나 운명에 부딪혀서도 자기 초월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 때 흘리게 되는 숭고한 눈물도 있다. 이런 인간적인 순수함이나 결백성과 연관되는 눈물에 새롭게 주목하면 눈물과 도덕성은 서로 연결될 수 있다.

근대에서는 비극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이처럼 비극이 불가능한 시대에 등장한 것이 멜로드라마다. 하지만 멜로드라마는 재현이나 반영보다는 초과나 과잉을 선호한다. 사건의 급변과 우연성을 남발하기도 한다. 때문에 “실패한 혹은 타락한 비극”<sup>26)</sup>이라고 비판받는다. 하지만 근대라는 탈신성화

25) 마사 너스바움(2015), 앞의 책, 169-170면 참조.

26) 피터 브룩스, 이승희·이혜령·최승연 역, 『멜로드라마적 상상력』, 소명출판, 2013, 148면.

된 시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멜로드라마는 보통의 인간들이 ‘도덕적 비의’를 추구할 때 필요한 감정 구조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sup>27)</sup> 멜로드라마 자체가 인간의 연약함과 고귀함을 동시에 표현하는 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혐오에 대한 혐오를 보이기 위해 혐오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멜로드라마적인 극단을 통해 ‘숨은 신’으로서의 눈물에 대한 추구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환희』에서 모든 인물들은 눈물이 많다.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특이하게도 남성 인물들도 예외가 아니다. 흔히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감상성을 남성 인물들도 공유한다는 점에서 이 소설의 멜로드라마적 성격은 강화된다. “희생되어서는 안되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도덕적 부당함으로 촉발되는 본능적, 육체적 지각”<sup>28)</sup>으로서의 눈물이 남녀 구분 없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나의 누이를 일평생 잊어 주지 말기를 바랄 뿐일세.』

하고 힘있게 쥐었던 우영의 손을 힘없이 놓으며,

『나의 원하는 것은 그것 하나밖에 없네.』

하고 눈물 방울을 뚝뚝 떨어뜨린다. 우영의 마음에는 또다시 아까 생각하던 불안한 생각이 났다. 그리고 무한 장래에 헤아리기 어려운 여성의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다만 한 알밖에 안 되는 어린 혜숙의 사랑을 생각하니 어쩐지 안타깝게도 부족하였다.

그러나 하는 수 없는 듯이,

『자네가 그것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지...』

하고 수건으로 눈물을 씻었다. (227면)

인용문은 혜숙이 우영에게 처녀성을 상실한 후 오빠인 영철이 우영을 찾아가 누이동생을 부탁하는 장면이다. 그런데 영철의 태도가 다소 의외이다. 본래에 “눈물있고 한있는 청년”(126면)인 영철이지만, 우영을 보고 과하게 “눈물 방울을 뚝뚝 떨어뜨린다.” 우영 또한 혜숙에게 얼마일 생각에 불안감

27) 앞의 책, 31면 참조.

28) 벤 싱어, 이위정 역, 『멜로드라마와 모더니티』, 문학동네, 2009, 74면.

과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영철의 눈물에 수건으로 눈물을 씻으며 응대한다. 우영의 경우 의외의 상황에서 느끼는 당혹감과 불편함에서 연유하는 의외의 눈물이지만, 더 의외인 것은 소설 곳곳에서 남성 인물들의 각종 다양한 눈물이 자주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남성들의 눈물을 통해 혐오감을 제공했던 사건에 대한 책임이 약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남성들이 거리낌 없이 눈물을 흘린다면 이때의 눈물을 통해 심리적인 공감이가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 처녀성을 상실한 혜숙에 대한 연민과 동정은 일정한 한계를 지니지만 영철과 우영을 혜숙과 동일시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동일시를 통해 스스로에 대해서도 절박감과 긴장감을 느끼게도 만든다. 특히 영철의 경우에는 한시적이고 표피적인 우영의 경우와 달리 보다 심층적이고 자기차별적인 죄책감과 연관된다는 점에서는 성숙된 나르시시즘이라고 볼 수도 있다. 흠 없는 상태, 순수한 상태, 오염되지 않은 상태를 복원하려는 노력과 통하기 때문이다.

정월도 웬일인지 자기 오라버니의 눈물 떨어드리는 것을 보고 갑자기 가슴이 무엇을 떠버티는 듯하더니 또한 뜨겁고 잔 구슬 같은 눈물이 떨어진다.

영철은 겨우 고개를 돌려 자기 누이를 바라보더니,

『우지 마라 응, 자 — 어서 자거라.』

하며 소맷자락으로 자기 눈의 눈물을 씻는다. 정월도 이 소리를 듣더니 더욱 눈물이 나며,

『오라버니, 왜 그렇게 우세요? 네? 저 때문에 그러세요?』

하고, 그의 가슴 앞에 엎드려져 운다.

『아니다. 아냐, 어째 그런지 이곳에 와서 세상 일을 생각하니 자연히 슬픈 생각이 나서 울음이 나오는구나. 자 울지 말고 어서 자거라.』

그러나 영철의 울음은 그렇게 그윽한 감구의 회포나 세상의 무상(無常)을 탄식하는 몽클한 심사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었다. 그 무슨 심장을 꿰어 뚫는 듯한 참기 어려운 슬픔이 있는 것 같다. 그는 그 진 같으면 얼른 눈물을 그치고 자기 누이를 위로하였으련마는 오늘은 눈물 방울을 펄펄 흘리면서 못 견디는 듯이 몸을 띈다.(376-377면)

인용문에서 보듯이 영철이 보여주는 최대의 눈물은 연인이었던 설화의 자

살 소식을 확인하고 난 후에 흘리는 것이다. “무슨 심장을 꺾어 뚫는 듯한 참기 어려운 슬픔”은 “그옥한 감구의 회포”나 “세상의 무상(無常)을 탄식하는 몽클한 심사”와는 다른, 보다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눈물이다. 설화와 우영의 관계를 오해해서 설화의 진심을 받아주지 못한 자신에 대한 회한의 눈물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눈물 방울을 펴 펴 흘리면서” 우는 영철의 모습은, 그 자체로 비극의 주인공에 다름 아니다. 이런 영철의 통곡을 보고 설화의 자살이 자신 탓이라고 생각한 혜숙(정월) 또한 이미 폐병을 앓고 있었던 몸을 백마강에 던져 자살하고 만다. 이런 여성들의 자살이 이것으로 인해 촉발된 남성들의 눈물보다 더 도적적인 결단이자 결말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살아남은 자로서, 그리고 그녀들에게 혐오를 느꼈던 중심 주체로서 남성인물들이 보여주는 눈물은 혐오에 대한 혐오를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에서 나도향 소설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감상성이나 퇴폐성, 우울이나 비애가 중심이 되는 하강적 결말로만 해석될 수 없는 카타르시스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소설 곳곳에서 범람하는 인물들의 눈물은 그들이 저지른 실수 혹은 잘못과 상관없이 그들을 죄인이 아닌 희생자로 전환시켜 준다. 상황 혹은 운명의 피해자이기에 그 누구도 상대방을 가해자라는 이유로 끝까지 비난하지 못한다. 혐오의 대상에서 공감의 대상으로 전유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정심과 공감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상대방에게 느꼈던 혐오의 감정을 극복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혐오를 극복한 혐오는 ‘도덕적’ 혐오라고 볼 수 있다. 감상적이고 병적인 눈물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눈물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나르시시즘을 극복한 눈물은 타인의 도덕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혐오의 감정에서는 더러운 것 자체가 죄이다. 피하고 싶은 이물스러움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런 이물스러움이 자기 탓인지 남 탓인지 구분할 수 없을 때 혐오의 감정은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자기 탓을 할 수 있을 때는 자기 혐오에 빠지게 만들고, 남 탓을 할 수 있을 때는 환멸에 빠지게 만든다. 하지만 이런 경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흘리는 눈물은 혐오의 감정을 무화시키

면서 도덕적 공감을 통해 부도덕한 현실을 성찰하도록 만든다. 이런 멜로드라마적 도덕성을 통해서 “어느 곳 하나에도 기댈 곳 없이 무력하게 놓인 사람들의 근대적 삶의 불안전성, 그 자체를 전달”<sup>29)</sup>할 수 있다. 1920년대 초기의 근대 체험과 연결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때문에 혐오의 감정을 극복한 이후에 흘리는 눈물은 약자의 도덕적 무기일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도덕적 혐오는 혐오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도덕을 문제 삼는 ‘혐오 이후의 혐오’라는 뜻이다. 근대 초기 자유연애의 관념성과 불안전성을 통해 연애에서도 혐오의 감정을 느껴야 했던 1920년대 근대적 연인들이 선택한 사랑의 묘약 아닌 묘약이 바로 혐오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도 이 때문이다.

## 5. 결론 : 1920년대 초기소설과 혐오의 근대성

인제 혐오의 감정이 극대화되고 공격적으로 변하는가? 마사 너스바움에 의하면 인간의 생래적 조건인 취약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렇다.<sup>30)</sup> 취약성을 지니지 않는 인간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간은 그 누구도 혐오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혐오를 느끼는 주체거나 혐오의 대상이 되는 객체거나 상관없이, 남성이거나 여성이거나 상관없이, 타자에 대한 혐오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거나 상관없이, 혐오는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혐오가 특정 상황에서 특정 대상의 예속화나 낙인찍기 등과 연결될 때 역사적이고 권력적인 감정 구조로 자리 잡게 된다.

1920년대 초기는 근대적 주체 형성에 중요한 개인의 발견만큼 중요한 감정의 발견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집단적 심성으로서 그 자체로 근대성의 징표가 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동인지 문학이나 문예사조적 측면에서 주로 접근되었던 1920년대 초기 한국문

29) 앞의 책, 199면.

30) 마사 너스바움(2015), 23면 참조.

학의 근대성을 근대적 감정 구조를 통해 재고해 볼 필요성이 여기서 대두된다. 퇴폐, 감상, 우울 등의 용어로 거칠게 요약되었던 나도향의 1920년대 초기 소설에 대해서도 새로운 감정 구조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1910년대 말 이광수 문학이 보여주었던 계몽의 실패로 인한 좌절과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1920년대 초기 한국 소설의 감정 구조를 단순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이광수의 1910년대 말 문학이 보여주었던 ‘계몽’의 추구에서 1920년대 초기 타인의 고통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을 의미하는 ‘동정(同情)’으로 근대 초기의 감정 구조를 파악하기도 하지만<sup>31)</sup>, 나도향의 소설들은 동정의 역상(逆狀) 혹은 현실태로서 혐오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출하거나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보다 나도향 소설 고유의 특성을 통해 근대 초기의 감정 구조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논의에서 연애는 이런 감정 구조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근대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성적인 자유나 의지에 토대를 둔 자유연애는 그 자체로 주체적이고 사회적인 정체성 형성과 연결되었다. 전통적인 규범이 무너진 근대적 상황의 알레고리가 바로 연애였던 것이다. 하지만 근대 초기의 연애는 서양으로부터 수입된 박래품이자 실제 없는 신기루였기에 현실에서의 실제 연애와 자주 불화하고 심각하게 충돌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혐오의 감정을 유발시키기도 했다. 특히 1920년대 초기 나도향의 소설 속 대부분의 근대적 연애는 실패했고, 그로 인해 혐오감을 동반했다. 당위적이고 선형적이었던 자유연애의 실패는 그 기대치의 낙차에 비례하는 혐오를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배신감과 죄책감이 착종된 형태로서의 실연 자체가 인간 내면에 도사리고 있던 비인간적인 동물성을 자극함으로써 어렵게 구축한 ‘더러운 연애’와의 경계를 위태롭게 만들었고(2장), 자타(自他)를 막론하고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연애를 불가능하게 만든 여성들의 몸에 대한 혐오를 증폭시켰지만(3장), 그럼에도 이런 혐오의 부정성을 극복하려는 도덕적 주체의 숭고한 눈물을 적극 생산하기도 했다.(4장)

이런 맥락에서 나도향 소설 속 혐오는 이중적이고도 양가적이다. 더러움

31) 손유경(2008), 앞의 책, 13-24면 참조.

에 대해 배타적이지만 순수함에 대한 지나친 추구를 포기하지 않는다.(2장) 그 연장선상에서 여성의 처녀성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지만 그것의 상실에 대한 나약한 인간들의 공포를 완벽하게 숨기지도 못한다.(3장) 무엇보다도 감정의 과잉이 도덕적 의지를 동반할 때 숭고한 감정으로 승화되는 근대의 마법을 보여주기도 한다.(4장) 때문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측면에서 혐오는 나쁘다거나 그렇기에 혐오를 금지한다는 단순한 결론만으로는 1920년대 초기 문학의 시대성과 나도향 소설에 대해 일면적인 평가만 답습하게 만든다. 1920년대 초기 연애소설에서의 혐오라는 감정 자체가 처음 체험하는 근대적 상황에 놓인 근대 주체들의 감정적 무기력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려는 현실적인 노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혐오하는 주체가 혐오 당하는 객체로 인해 자신의 나약함을 확인할 가능성, 혐오 당하는 대상이 혐오하는 상대의 부도덕을 고발할 가능성이 공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연애의 실패에서 촉발된 혐오의 감정이 근대 초기의 활력(活力)을 약화시켰다는 측면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그와 동시에 성찰적 근대성을 작동시킴으로써 ‘근대를 넘어서는 근대’를 꿈꾸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나도향의 첫 장편소설 『환희』는 근대적 혐오가 불러일으킨 부메랑의 긍정적 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혐오의 다층성이 근대의 양가성과 만나는 나도향의 근대장편연애소설 『환희』는 그 자체로 1920년대 근대 초기 체험의 시금석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 참고문헌

### 1. 자료

나도향, 『나도향 전집』, 상, 하, 주종연·김상태·유남옥 편, 집문당, 1988.

### 2. 논저

박현호, 「나도향의 욕망의 문제」, 『식민지 근대성과 소설의 양식』, 소명출판, 2004, 157면.

백철, 『신문학사조사』, 백양당, 1949, 신구문화사, 1980, 212-214면.

손유경, 『고통과 동정』, 역사비평사, 2008, 13-39면.

유문선, 「테몬과 맞선 영혼의 굴절과 좌절-나도향의 『환희』론」, 정호웅 외, 『장편소설로 보는 새로운 민족문학사』, 열음사, 1993, 28면.

윤보라 외, 『여성혐오가 어쨌다구?』, 현실문화, 2015, 16면.

이수영, 『섹슈얼리티와 광기』, 그린비, 2008, 156면.

이혜령, 「성적 욕망의 서사와 그 명암-나도향 『환희』론」, 『한국소설과 골상학적 타자들』, 소명출판, 2007, 114면.

임정연, 「근대소설의 낭만적 감수성」, 『현대소설연구』, 48권, 326면.

정혜영, 「근대의 성립과 ‘치녀’의 발견」, 『식민지기 문학과 근대성』, 소명출판, 2008, 121면.

진정석, 「나도향의 『환희』연구」, 『한국학보』, 76집, 130면.

마사 너스바움, 조계원 역,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23면, 36-37면, 62-63면, 144면, 166면, 168면, 169면, 170면, 173면, 196면, 200면, 208면,

메리 더글라스, 유제분·이훈상 역, 『순수와 위험』, 현대미학사, 1997, 30-31면

벤 싱어, 이위정 역, 『멜로드라마와 모더니티』, 문학동네, 2009, 74면, 199면

우에노 치즈코, 나일등 역,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2012, 16면

피터 브룩스, 이승희·이혜령·최승인 역, 『멜로드라마적 상상력』, 소명출판, 31면. 148면.

【Abstracts】

Structure of Feeling of Disgust in  
Na Do Hyang's Novel  
-Focusing on 『Hwanee』

Kim Mi-hyun

The pre-existing studies have evaluated that novels by Na Do Hyang represent romanticism and sentimentalism of Korean literature in 1920s. However, new aspects of 'disgust' may be emphasized when examined in terms of the Structure of Feeling meaning a "dominant feeling having a great effect on experience and action of certain period and generation". The reason why is that a feeling of disgust is a complex construct embracing the emotional/reasonable, specific/universal and individual/social. In particular, his first novel 『Hwanee』 shows a variety of aspects of disgust. Firstly, disgust manifests itself as adherence to vigilance of purity non-contaminated from the dirty. Since, disgust is the very 'fear of contamination' by characters who regard a secular and sexual snob as an animal and separate them from him. Secondly, disgust manifests itself as an physical and filthy image related to a female body. However, it shows misogyny by males for female characters who lost their virginity and desire for recovering such a loss at the same time. Thirdly, it aims to ensure the morality through disgust linking with tears. The reason why is that every character wants to be raised to the sublime being by shedding tears at their tragic situations. Through these aspects of disgust, novels by Na Do Hyang show the active modern ideology for keeping up with the time

s as a modern individual rather than unproductive feelings of the morbid and fragile youth in the colonial era.(\*)

Key words : love, structure of feeling, disgust, purity, pollution, virginity, misogyny, melodrama

이 논문은 2017년 6월 1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7년 7월 6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7년 7월 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